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8.(화) 11:00 < 11.9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8.(화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호성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 황창호 (044-203-5251)

인도네시아와 자원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

- 제13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11.8일(화), 롯데호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「**제13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**」**을 화상으로 개최**하였다.

○ 인도네시아는 **니켈, 주석, 발전용 유연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***하고 있어 **우리나라와 자원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협력 중요성**이 높은 국가이며,

* 매장량('21) : 니켈 21백만톤(세계 1위), 주석 80만톤(세계 2위)
수출량('21) : 발전용 유연탄 454백만톤(세계 1위), 천연가스 10.8백만톤(세계 8위)

○ 양국은 **에너지·자원 분야 정책교류** 및 **협력사업 발굴·지원**을 위한 공식 채널인 **한-인니 에너지포럼***을 **매년 개최**하여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.

* 정부 간 자원협력위 설치('79) → 민·관이 공동참여하는 한-인니 에너지포럼으로 확대('07)

< 제13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** : '22.11.8(화) 15:00 – 18:00 / 롯데호텔 서울(화상회의)

○ **참석자** :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, 민간기업 등 40여명

- **(한국)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(수석대표)**, 중부발전, 산업기술진흥원, 삼성엔지니어링, 한전, 생산기술연구원, 에스케이 이엔에스(SK E&S), 석유공사, 포스코 인터, 지자연, 광해광업공단, 에너지기술평가원, 서울대학교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한국해양대협의체 등
- **(인니) 투투카 아리아지(Tutuka Ariadji)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(수석대표)**, 석유가스청, 전력청, 신재생청, 전력공사(PT.PLN), 석유가스규제위원회(SKK Migas), 국영석유회사(PHE), 석유가스연구소(Lemigas), 인적개발원(BPSDM), 과학기술혁신처(BRIN), 반둥공과대학(ITB) 등

○ **주요내용** : 양국 간 에너지·자원 분야 정책현황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·지원

□ 금일 포럼에서 양국은 '**자원 공급망 협력**', '**청정에너지 협력**', '**협력기반 구축**' 등 3개 세션에서 다양한 협력의제를 논의하였다.

❶ **(자원공급망 협력)** 세션 1에서 양국은 인니 측의 '**국제입찰 계획 및 석유·가스 개발 정책**', '**석유·가스 탐사사업 협력 기회**' 발표에 이어 **우리 기업의 신규 탐사사업** 진출 등 협력 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* (포스코 인터) 인니 국영기업(PHE)과 신규 해상 가스전 탐사를 위한 공동조사사업 수행
(석유공사) 인니 국영기업(PHE)과 신규 탐사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사업 중

- 아울러, 금년 2월 정부 간 체결한 '**한-인니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정(MOU)**'를 기반으로 **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**하기로 하였으며,

- 양국 대표 연구기관 간 **한-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***을 추진하여 **니켈·희토류 등 핵심광물 선도기술을 공동개발**하고, **산·학·연 연계망을 구축**하여 **양국 기업간 협력사업을 지원**해나가기로 하였다.

* (한) 지질자원연구원 - (인니) 반둥공과대학 간 공동연구센터 설립 합의각서(MOA) 체결(11.7)

❷ **(청정에너지 협력)** 세션 2에서 양국은 '**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**(산업부)', '**인니 신재생에너지 정책**(에너지광물자원부)' 등의 정책을 교류하고, **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**하였으며,

- '**수력발전사업 협력**(중부발전)', '**LNG터미널 구축 및 CCS 사업개발 협력**(에스케이 이엔에스)', '**ODA 사업*을 통한 청정에너지 협력**' 등을 논의하여 **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**를 모색하였다.

* 태양광 충전 e-vehicle 시스템 보급 ODA사업 협력(KIAT) 및 그린수소·암모니아 생산시설 구축 등 신규 ODA 기획 논의

❸ **(협력기반 구축)** 세션 3에서 양국은 '**한-인니 에너지 R&D 협력**(에기평)', '**글로벌 에너지 정책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한 인적교류 강화**(서울대)', '**에너지·자원 분야의 인적개발**(에너지광물자원부)' 등 의제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

- 양국 정부간 '**에너지 안전관리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(MOU)**'를 **갱신**하여, **전기·가스 안전 관련 정보교류**, **기술·정책 컨설팅 제공** 등 **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지속**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□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“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이자 **한국의 광물자원 4위 공급국**이며, **한국은 광물의 채굴 및 정·제련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**하여 **양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**”임을 강조하며,

○ “금일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의제를 통해 **양국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**에 기여하고, **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**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